

## 조남령의 시학 연구\*

- 명의(命意)의 미학과 시름의 삼김

정민구\*\*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새로운 형식과 명의(命意)의 미학
- III. ‘삼기다’의 주체와 ‘시름’의 의미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신춘문예에 소설, 시조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고, 가끔 이병기의 3회 추천을 통해 기성 문인의 대우를 받게 된 영광 출신의 시인 조남령은 우리 문학사가 망각해 왔던 문인의 한 사람이다. 월북문인으로 해금 조치 이후에도 그의 생애 및 작품 전반에 대한 정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조남령 문학 전집』(2018)의 발간을 통해 망각된 문학사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왕의 선행 연구

\* 이 논문은 2018년 3월 31일에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박사후연구원

들은 그의 생애와 작품이 역사적 상황과 밀접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현실과 마주하는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문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정언명령과도 같다. 그의 작품들에 나타난 이념성의 강한 표출은 정언명령의 실천이 그에게 혹은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가 이념성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비교적 후반의 일부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은 그의 시작(詩作)을 가능하게 한 시적 원리가 명의(命意)의 미학에 있으며, 현실과 마주한 삶(시인)의 시름이 유래하는 시적 기원에 대해 고찰하여, 이념성의 표출이 생경한 방식이 아니라 그의 시학과 맞닿아 있는 현실 대응의 한 방식이라는 점을 밝혀내기 위한 예비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조남령, 시학, 명의(命意), 시름, 이념성, 현실 대응

## I. 들어가는 말

조남령(曹南嶺, 1920.12.2.~?)은 백철(白鐵)의 추천을 받아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익어가는 가을」(1939.3.19.~4.3.)을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소설가로서 등장했고, 가끔 이병기(李秉岐)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窓—어느 스승님께」, 「金山寺」, 「鄉愁」, 「봄—追憶片片」이 『문장』지에 3회 정식 추천을 받으면서 시조를 짓는 시인으로 재차 등장했으며, 이데올로기적 면모를 보이는 시를 해방기의 문예잡지에 여럿 발표하면서 자유시를 쓰는 시인으로 또다시 등장했다.<sup>1)</sup> 그가 남긴 작품이 다수

인 것이 아니면서 창작 활동 기간도 짧았으며, 월북 문인이었다는 점 등  
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여태껏 그의 전체 생애를 밝히거나 작품을  
모아놓은 자료집의 발간,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시조 38편, 시 8편, 소설 1편, 수필 4편, 평론 4편, 번역문 1편  
에 해당하는 미발굴 작품들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은 그가 활동한 시  
기에서 반세기가 훌쩍 지나 새롭게 발간된 『조남령 문학 전집』(소명출  
판, 2018. 이하 『전집』)을 통해서이다. 물론 『전집』 이전에 발간된 그의  
작품집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남령 시문학』(영광향토문화연구회,  
1993)과 『바람처럼』(태학사, 2006) 같이 조남령의 문학작품 일부를 자료  
집으로 묶어낸 경우가 있었다. 그들 자료집이 조남령의 문학 세계를 살  
펴보려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  
으나 시대적 분위기로 인하여 원전의 검토 및 확정 작업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까닭에 그의 문학 작품 전반을 살피기에는 긍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저간의 사정이 그러한 가운데 조남령의 생애를 혹은 조남령의 문학  
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제출된 논문은 총 3편으로  
확인된다. 먼저, 조남령의 생애와 작품의 수집, 그리고 작품의 정리 상황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생애 및 작품의 연보를 정리하고 주요  
작품을 분석하여 40년대 시조의 혁신[현대성]에 기여하였다는 시사적 의  
의를 도출함으로써 기왕의 우리 문학사에서 놓쳐버린 그의 바른 자리를  
되찾으려고 시도한 문무학의 논문<sup>2)</sup>은 조남령의 존재 및 문학 세계 연구  
의 필요성을 시대적으로 앞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음

1) 『문장』지에 시조가 추천되는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2차 추천이 완료된 직  
후인 1940년 1월 5일에 그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새봄」이라는 시조를 투고하여 등단한다는  
사실이다. 『문장』지 심사위원을 통해 3차 추천을 완료하면 기성 문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  
도 그가 애써 「신춘문예」라는 신인 등단 제도를 통해 스스로 문인의 자격을 얻으려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문무학, 「조남령 연구」, 『우리말글』9, 1991.

으로 조남령의 작품세계는 고전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낭만적 아이러니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다시 혁명적 로맨티시즘에 기초한 진보적 리얼리즘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작품 세계의 변모 과정을 밝힌 엄동섭의 논문<sup>3)</sup>은 조남령의 미발굴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문학 세계 전반을 가늠하고 시대적 상황과 조응하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조남령 문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기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지나온 조남령과 같은 작가의 경우에는 생애와 문학이 밀접한 관련을 맺기 마련이라는 전제 하에 그의 시대적 행적을 따라 역사·전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묻혀 있던 작품 다수를 발굴하고, 생애와 작품과의 상관적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이동순의 논문<sup>4)</sup>은 문학사가 망각한 시조시인 조남령이라는 이름을 넘어 문학 행위를 통해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민족시인의 문학사적 궤적을 보다 분명하게 조명하였다.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집』 발간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후 조남령 연구가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우리 문학사에서 잊혀있던 시인 조남령의 생애를 조망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시인(삶)-시조(문학)-역사(현실)’이라는 삼각의 관계망에 대한 유의미한 지형도를 그려주었다. 그러한 지형도는 이념성의 표출이 강하게 나타난 후기의 일부 작품들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규명’이 아닌 ‘봉합’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이념성으로의 전회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인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sup>5)</sup> 신념의 선택이

3) 엄동섭, 「한 고전주의자의 좌파적 전향—조남령론」, 『어문연구』28(2), 2000.

4) 이동순, 「조남령 시의 역사적 내용 양상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8(3), 2017.

시작(詩作)의 전환을 추동했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의 결과론은 조남령이 보여준 서정적인 시조에서 이념적인 자유시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급진’과 다시 시조로 돌아오는 ‘회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글은 조남령의 문학 세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예의 삼각의 관계망이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여겨지는 시작(詩作)의 추동 요인과 시작(詩作) 행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리 언급하자면 이 글은 전자에 해당하는 요인을 새로운 시조 형식을 지향하는 명의의 미학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의미를 시름을 삼기는 주체-되기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남령의 시학에 대해 조망하면서, 후기에 나타나는 이념성의 표출이 생경한 방식이 아니라 그의 시학과 맞닿아 있는 현실 대응의 한 방식이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 II. 새로운 형식과 명의(命意)의 미학

“노래 삼감사람 시름도 하도할사/일러 다못일러 불러나 푸듯던가/진실로 풀릴것이면 나도불러 보리라”는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에 대해 평하는 자리에서 예술/문학의 본질에 관한 고뇌를 통해, “예술품은 직관 상태에 본질적으로 존재한 형태라는 것이요, 창작 과정이라는 것은 본연적인 형태 그것을 찾아내는 공작에 불과한 것”<sup>5)</sup>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조남령이다. 예술품 혹은 문학(시)에 관한 이 짧고

5) 이와 관련하여 엄동섭(2000)과 이동순(2017)은 <학병동맹사전>을 조남령에게 있어서 신념의 선택이 일어난 전환점으로 본다.

6) 「詩話三題」, 『학풍』, 1949.3.(『진집』, 156쪽).

분명한 단언은 조남령의 예술/문학관이 직관 혹은 본질로 일컬어지는 형 이상학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시 혹은 예술 창작이란 공작(工作)의 과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시인이 예술이라는 용어로 지칭할 수 있는 가장 근접적인 대상을 시라고 간주할 때, 그에게 시란 직관 상태에서 포착된 본질을 글쓰기를 통해 시어로 옮기면서 빛어낸 예술품이 되는 것이다. 본질적인 형태라는 말에서 보통 ‘뮤즈’로 대표되는 시적 영감을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창작 과정이 공작에 불과하다는 말에서 또한 그는 글쓰기를 기술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질적인 형태를 기술적인 형태에 담아놓은 시적 영혼의 예술(품)을 일컬어 시라고 부를 경우,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구분 및 위상 관계를 넘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두하는 것은 조남령이 시를 쓸 수 있도록 또는 조남령에게 시가 쓰여지도록 추동하는 ‘본질적인 형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볼 단서를 찾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선지점이 하나 있다. 애초 소설(가)로 등장한 조남령이 다시 시(인으)로 재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소설에서 시로 표현의 장르를 바꾸었다는 것은 본질을 담을 그릇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연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문단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약관의 나이에도 이르지 못한 어느 문학청년이 쓴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다룬 농촌소설 「익어가는 가을」을 『동아일보』 제1회 신인문학콩쿨 예선에 추천한 심사위원은 백철이었다. 이를 계기로 조남령은 신인 작가로서 문단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 신인 작가의 등용을 위한 신춘문예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아일보』가 작품모집 기간이 한 달 남짓한 신인문학콩쿨 공모를 ‘시급하게’ 추진한 까닭은 “신인이 열망하던 문단에의 등용문”<sup>7)</sup>이라는 표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문단의 침체를 극복할

‘신인 등용’이라는 시대적인 명목이 있었으며, 이차적으로는 지면에 내보낼 ‘소설 작품 확보’라는 내부적인 사정이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새로운 작가와 새로운 작품을 필요로 한 것은 1935년 카프(KAPF) 해체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일제의 문화·예술 탄압이라는 정세 속에서 민족문화운동의 구심점으로써 신문 매체가 행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무기정간을 당한 이후에 복간된 『동아일보』가 새로운 소설 연재를 시작하면서 “본보가 정간처분을 당하던 때에 본보에는…장편소설이 연재되어 독자의 애독을 받았었으나 불행히 중단된 지 이제 9개월여에 그 소설들의 이야기 줄거리가 독자 여러분의 기억에서 아마 거이 멀어졌기가 쉬우므로 아까운대로 모두 다시 계속하지 안키로 하고 그 대신 새로이 조코 재미나는 소설 세편을 시작해야 이 기회에 지면의 면목을 일신케 하는 동시에 독자 여러분의 흥미를 새로 돋우려합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동아일보』의 자구책은 1938년 7월 신인문학콩쿨 공고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는 소설의 확보가 시급했던 만큼이나 새롭게 내보낼 작품에 요청된 것은 ‘민족문화운동’보다는 외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당시 대부분의 민족문화운동을 기치로 내세운 신문들의 독자층은 도시라는 근대적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했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농촌은 민족의 원형적 공간이자 삶의 원시적 공간으로서 “조선적 특수성”<sup>9)</sup>을 발견하기에 ‘충분한=흥미로운’ 장소였을 것이다. 근대문학의 발흥 시기에 나타났던 문학 작품에서 원형과 원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근대적 주체

7) 「제1회 신인문학콩쿨」, 『동아일보』, 1938.7.29.

8) 손동호, 「1930년대 『동아일보』 신인문단 연구」, 『인문논총』73(4), 2016, 260~261쪽.

9) “1930년대 민족주의적 주체는 이전 시대의 보편지향성을 거쳐 ‘특수’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농촌에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서구적인 것과는 다른 조선적 원형을 품은 공간으로 인식된 농촌은 조선적 인 것[조선적 특수성]을 발견할 장소로 새롭게 호명되었다.” 차성연, 「1930년대 농촌개공소설에 나타난 농촌의 의미」, 『한국문학논총』57, 2011, 114쪽. [ ]는 인용자.

에게 있어 계몽의 객체로 구별되어 인식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에게 일어나는 책무와 호기로움은 해당 작가의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도 손쉽게 전이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청춘 남녀 4쌍의 연애 이야기를 ‘특별한 갈등 구조’ 없이 풀어낸 「익어가는 가을」이 ‘전쟁이나 소작 문제와 같은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지 않았으면서도’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입선과 연재의 기회를 얻어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연원을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10)</sup> 이와 관련하여 신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성 간의 사랑’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경향에 대해, “일제의 파시즘 강화로 정치적 빌언이 금지된 상황에서 애정에 관한 문제는 검열로부터 가장 안전한 소재였을 것”<sup>11)</sup>이라는 의견도 제출된다. 타당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국문학사의 측면에서 남녀의 애정 문제는 전통적인 소재이면서 동시에 급진적인 소재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보다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간이 사정이 그러한 가운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문학·예술 활동의 제약과 탄압이 극대화된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역사적인 대응 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작품 대신 객관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과 의식을 다룬 농촌소설로 조남령의 문학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인 대응 의식의 부재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해석하는 일은 논의의 편의를 더하는 일 외에 다른 맥락적 의미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외려 신인문학콩쿨이라는 제도에 입각하여 첫 작품을 내려는 작가에게 있어서 지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국가와 역사를 소재보다 농촌과 일상이라는 소재가 더 긴요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게다가 이외의 논의를 덧붙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소재의 취

---

10) 손동호, 앞의 논문, 266~267쪽.

11) 손동호, 앞의 논문, 269쪽.

사로부터 시작된 소설가로서의 길이 바로 거기에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소설 「익어가는 가을」은 1939년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에 연재되었고, 연재가 종료된 이후 조남령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법정대학 고등사범부 영문과(야간부)에 입학하여 고학 생활을 이어가면서 소설이 아닌 시조 창작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39년 7월 가람 이병기는 심사위원으로서 『문장』지 시조 부문에 신인의 작품으로 「窓—어느 스승님께」와 「金山寺」를 추천하는데, 이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조남령은 소설가가 아닌 시인으로서 다시 문단에 등장하게 된다.

내 살이 아니라고 어이 아니 아프겠소/내 몸이 아니라고 어이 아니  
치웁겠소/덜덜덜 窓 멀 때마다 마음 저려 하외다.///눈보라 덧치던 눈  
얼마나 억찼을가/窓 앞에 메웠던 덕대 부러 졌단말가/그래도 저 넝쿨  
에야 새 움 자라 나겠지.///물무 뒷산에는 진달래 꽂답니다./구름다리  
시냇가엔 살구꽃 피겠지요./그꽃잎 나의 벌인양 살窓 속에 너리까.<sup>13)</sup>

「窓—어느 스승님께」는 “물무”, “구름다리” 등과 같은 시어이자 친숙한 지역어<sup>14)</sup>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의 고향인 전남 영광(靈光)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동리에 살았고 <영광체육단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던 스승 조운을 그리며 쓴 시이다. 시대적 상황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 스승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와 안으려는 진실한 마음이 배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서의 교유는 “일찌기 목포상고 재학 시절부터 고향 선배이자 문학수업의 스승격인 조운의 영향을 받았던 남

12) 엄동섭, 앞의 논문, 257쪽.

13) 「窓—어느 스승님께」, 『문장』1(6), 1939.7.

14) “물무”와 “구름다리”는 현재 영광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다.

령은 조운을 대상으로 이 시조를 썼고 남령도 영광체육단 사건과 문학동공회 사건으로 같은 해 영광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들은 일찍부터 항일의식이 투철했다.”<sup>15)</sup>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窓—어느 스승님께」는 지극히 서정적인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역사적인 아픔을 내면화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舍利塔 墓 위에서 쉬느라니 다람쥐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잔디에 쫑  
종히 앉았습니다.—이 절엔 다람쥐가 꽤 많았습니다.)//애잇! 알랑달랑  
아망스런 저 다람쥐/舍利塔 잔디가 네 마당이로구나!/호젓한 양지쪽 깊  
에 탐스런 집 가셨군//다람쥐 너는 예서 몇代나 살아왔나?/塔이야 千  
三百年 비 바람 겪었단다/비껴라! 내려가련다 석축 틈에 숨어라//(다람  
쥐의 이야기)/골짜물 운답니다, 빼꽃기 운답니다./千때면 三層法堂 石鐘  
이 운답니다./千그루 벚나무 새에 꽃도 뺏다 진대요<sup>16)</sup>

「金山寺」는 익산에 있는 사찰을 배경으로 쓴 시이다. 사찰에 있는 사리탑을 둘러보는 시인의 눈앞에 “아망스런”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난다. 사찰을 제집인양 쏘다니는 다람쥐에게 시인은 사리탑에 아로새겨진 인간 역사의 유구함에 대해 밝히면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묻는다. 사찰을 둘러싼 자연물의 시련과 반복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역사와 자연의 공명(共鳴)일 뿐’이라는 다람쥐의 대답은 시인의 물음을 설파하고 만다. 자연물에 대한 물음을 통해 다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문답의 과정에서 시인은 익산에 살고 있던 스승 가람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며, 사람이 주창했던 자연물의 시화(詩化)에 입각한 시상의 전개에 대해 물두하기도 했을 것이다. 또한 시적 스승과 시적

15) 이경애, 「가람·조운·조남령 삼인시조집 발견의 의의」,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9, 2018, 92쪽.

16) 「金山寺」, 『문장』1(6), 1999.7.

형식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인이나 다람쥐의 문답에서 전경화되고 있는 금산사의 역사이다.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금산사는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전소되었다. 그러므로 금산사라는 사찰에 얹힌 역사적 시련과 반복을 다시 묻는 일은 내밀한 서정의 영역 바깥에서 가능한 일이다.

두 작품은 전통적인 시조의 형식을 넘어 자유시의 그것에 가까운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이 두드러진다. 이점은 사람이 추천사를 통해 지목했던 것이기도 하다. 사람은 추천의 변을 밝히는 지면에서 “曹南嶺君은 形을 꽉 자유롭게, 말을 꽉 새롭게 썼다.”<sup>17)</sup>고 평했다. 즉 시인 조남령의 작품은 형식과 표현에서 기성의 시조보다 ‘현대적인(modern)’ 측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투를 벗어난 새로움을 추구한 작품”<sup>18)</sup>이라거나 “형과 리듬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며 말을 새롭게 썼다.”<sup>19)</sup>는 이후 논자들의 평가와도 상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평가는 심사위원으로서 친분 관계에 의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평을 내렸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적확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저거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울고 가야/바다 건너 불어 오는 비 품은  
마파람에/나뭇잎 소곤거리는 異域—하루 밤이다./울타리 쪽나무에 청  
개고리 비 부를젠/새터 열마지기 하늘 먼저 살피시든/아버지 이 여름  
들어 소식 잠잠하시네./방학때 집에 들면 옷수솟대 매두마다/어머님  
아낀 사랑 쪼록쪼록 긁었더니/올해는 한 뜫이 줄어 작히 섭섭하시리//  
올봄 영창에는 어떤 집 지었느냐?/앞마당 뱀랫줄에 동생 옷들 걸렸드  
나?/제비면 내골서 온 양 거짓없이 못습네./매미 우는 소리 어린 시절

17) 이병기, 「時調를 뽑고」, 『문장』1(6), 1939.7, 144쪽.

18) 문무학, 앞의 논문, 173쪽.

19) 엄동섭, 앞의 논문, 265쪽.

눈에 어려/낮으막 키 줄이고 나뭇가지 쳐다보니/뒤꼭지 저편 숲에서  
꾀꼬리도 우더라.<sup>20)</sup>

2차 추천 작품인 「鄉愁」는 직장을 그만 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조남령이 “異域” 땅에서 고학(苦學)에 열중하면서 느꼈던 부모님과 형제들, 고향의 소식에 대한 그리움이 애절하게 표출되어 있다. 「鄉愁」에 대한 사람의 추천평에는 이전의 추천평에서 언급되었던 형식의 현대성을 넘어서는 다른 특성을 조남령의 작품이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어떤이는 時調는 形이 어렵다하기도 하지마는 이런 時調를 보라. 무엇이 어려운가. 이런이는 形보다 命意로서 짓는이다.”<sup>21)</sup> 일반적으로 시조는 형식의 문학이다. 시조의 형식은 어렵다. 좋은 시조는 형식의 어려움을 토대로 지어진 시조이다. 이것은 시조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시조의 현대적 혁신과 부흥을 꿈꾼 사람이 보기에는 형식으로 지은 시조 말고도 좋은 시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의(命意)’로 지은 시조이다. 사람이 보기에 조남령의 시조는 바로 그러한 명의로 지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엄동섭은 자존적인 정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시련과 속악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과 고고함의 내면 세계가 사람이 말하는 명의의 정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sup>22)</sup> 이에 따르면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확고한 문학적 신념을 명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분명한 뜻을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3차에 걸친 추천사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명의라는 용어를 빌어 사람이 뜻

---

20) 「鄉愁」, 『문장』1(11), 1939.12.

21) 이병기, 「時調를 뽑고」, 『문장』1(11), 1939.12, 125쪽.

22) 엄동섭, 앞의 논문, 263쪽.

하려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추정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3차 추천사에서 가람은 조남령의 「봄—追憶片片」에 대해 “그 리듬도 꼭 自然, 自由스럽다. 新新한 現代詩의 그것이다. 이런 점이 古調와는 판연 다른 것이다… 그의 생각이 꼭 純粹하고 眞實하다…詩는 真實한 自我를 表現함이다.”<sup>23)</sup>라고 평했다. 3차에 걸친 추천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견은 조남령의 시조에서 보이는 형식상의 자유로움에 대한 궁정이다. 이에 따르면 명의는 형식을 통어(統御)하는 것이다. 형식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2차와 3차에서 덧붙여진 의견은 조남령의 시조는 명의에 입각해 있으며 순수하고 진실한 자아를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을 통어 하는 ‘명의’는 ‘순수하고 진실한 시인의 정서 혹은 시적 체험을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명의로 지은 시’는 ‘고결한 시적 영혼이 담긴 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시조에 있어서 순수/진실의 미학은 형식의 미학을 넘어선다는 것이 명의라는 용어에 담긴 사람의 뜻일 때, 명의의 시는 근대 자유시의 미학과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고조(古調)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새로운 시조가 자유시(라는 장르)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조의 부흥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조의 정체성을 상실 켜 하여 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근대시조가 추구하는 경지가 자유시 고유의 본령이라면…논리적 모순이 발생”<sup>24)</sup> 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시를 창작하는 연장선상에서 현대시조를 창작하거나, 자유시를 대하는 감식안이나 기대지평을 가지고 현대시조를 감상하거나 비평하지 말”<sup>25)</sup>야마만 시조의 장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실 조남령의 2차 추천 작품인 「鄉愁」에 나타난 형식과

23) 이병기, 「時調選後」, 『문장』2(5), 1940.5, 77쪽.

24) 유성호, 「가람, 시조, 문장」, 『비평문학』45, 2012, 375쪽.

25)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시조학논총』17, 2001, 78쪽.

리듬은 시조의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거기에 ‘자유’와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시조‘다운’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자유시의 요소에 가까운 것이다. 아무리 시조의 현대성을 주창한 사람이라해도 시조 부문의 신인 작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에 가까운 요소만으로 3차에 걸쳐 추천 작업을 진행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그러한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 시조의 현대성과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시조의 전통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2차 추천 작품에서 사람은 명백하게 자유시의 요소가 아닌 것으로서 명의라는 요소를 포착해낸다. 그렇다고 해서 고결한 시적 영혼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명의를 사람이 갑작스럽게 주조해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실 1930년대 시조의 혁신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시와의 경계 설정 문제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론 개념으로서 ‘격조(格調)<sup>26)</sup>와 표현 방식으로서 ‘실감실정(實感實情)의 재현’을 창안한 이가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sup>27)</sup> ‘격조’와 ‘실감실정’이 시인의 내면적 진실성/체험성과 맞닿아 있는 것일 때, 시인의 진솔한 정서와 체험을 중시하는 명의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시조의 부흥과 혁신을 위해 시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성을 융합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의 시조혁신론의 토대 위에서 조남령의 작품들은 3차에 걸친 검증과 인정(re-cognition)을 받은 후에 새로운 시조로서 문단에 등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명의가 이끌어낸 시인의 진실하고 확고한 신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26) 격조는 ‘이태준과 정지용이 가람에게서 발견한 바 있는 ‘蘭으로 표상되는 향기와 품위와 고절의 세계’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이명희, 「『문장』이 보여준 ‘전통’의 의미와 의의」, 『현대 문학과 여성』, 깊은샘, 1998, 299쪽.)

27) 유성호, 앞의 논문, 375~387쪽.

### III. ‘삼기다’의 주체와 ‘시름’의 의미

다시 앞서 언급했던 신흠의 시를 돌이켜보자. 그 작품은 ‘노래를 삼긴 사람은 시름이 너무 많아서, 말로 다 풀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름을 풀었다하니, 진실로 시름이 풀린다면 나도 노래를 불러보겠다’는 작자의 애롱한 심사를 표출하고 있다. 애롱한 심사의 문학적 형상화와 더불어 드러나는 것은 노래를 삼기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의 기저에 시름이 놓여있다는 문학적 진실이다. 문학적 진실의 원천으로서 “‘시름’이라는 말은 苦惱だ。矛盾이다.”라고 단언한 조남령은 “神話文學時代는 問題가 아니되지마는, 宗敎文學時代에 있어서의 唯一神과 人間과의 對立에서 빚어지는 여러 喜悲劇 그것이며, 封建文學時代에 있어서 特權과 人間과의 對立에서 빚어진 喜悲劇이 그것이요, 부르조아 文學時代에 있어서 人間과 人間과의 對立 軋轢에서 생기는 가지가지 矛盾狀態 그것인 것이다. 이것을 통털어 ‘시름’이라는 한 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조선말은 얼마나 고마운 말이냐?”<sup>28)</sup>라고 반문하면서 인간의 시대적/사회적 삶은 시름의 연속이라는 인식 후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찬탄을 마지않고 있다.

시름과 언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다. 삶이 있는 한 시름도 있으며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본연의 문제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다. 신흠의 노래에 따르면 인간은 노래 부르기라는 언어 사용을 통해 ‘내면의’ 시름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다. 안에 있던 시름은 얹힌 상태지만 밖으로 표출된 시름은 풀린 상태가 된다. 풀린 상태라는 것은 한 인간이 시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마주치는 고뇌와 모

28) 『詩話三題』, 『학풍』, 1949.3.(『전집』, 156쪽).

순의 형상은 얹힌 상태에 있으며, 얹힌 것은 언어 사용/노래 삼기기를 통해 풀 수 있다. 삶의 부조리는 인간 존재에게 내면화되었을 때 억압과 굴종의 상태를 야기하지만 언어 행위를 통해 표출되었을 때 극복과 해방의 상태를 모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詩人은—藝術家는 讀者앞에 시름을 再現시킴으로써 노래삼긴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 시름의 再現에는 먼저 體驗이 先行한다.”거나 “노래 삼긴 사람’은 詩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詩가 낳아지도록 하는 사람’인 것이다. 즉 그것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다.”<sup>29)</sup>고 썼던 조남령의 언급은 언어 사용의 차원에서나 시문학 일반의 차원에서 보아 적실하다. 언어 사용을 시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구현해내는 시인은 자신의 진솔한 체험을 구체적인 언어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시름/정서를 체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체험이 있고 난 후에야 시가 있을 수 있다. 밀하자면 체험이 언어 사용에 선행하며, 체험이 없으면 언어의 예술적 사용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은 일종의 시적 영감/뮤즈의 작동인이 되어 시작(詩作)을 추동하는 근원적 요소가 되는 것이며, 그럴 때 진솔한 체험에 입각하여 실감실정으로 창작에 임하는 시인을 가리켜 시가 저절로 생기는 ‘삼기다’의 주체로 부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남령에게 시적 영감을 자극하는 원체험이자 글쓰기를 추동하는 문학적 신념이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우선 알려져 있는 대로 그의 짧은 생애를 들여다보면 몇몇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문단에 등장하게 되는 일, 일본으로 유학을 간 일, 학병으로 징집을 당한 일, 스승 및 문우들과 교유한 일 등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각 체험들을 겪은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조남령이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문단 등장을 체험한 시기에는 「窓—어느 스승님께」, 「金山寺」와 같

---

29) 『詩話三題』, 같은 곳.

이 문학적 스승인 조운(朝雲, 1900.7.22.~?)과 가람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일본 유학을 체험한 시기에는 「鄉愁」, 「봄—追憶片片」과 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을, 학병을 체험한 시기에는 「北岳山 산야바람 불어내린 날」 같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낸 작품을, 스승 및 문우들과 문학적 교유를 체험한 시기에는 「떠나든 임」 같이 문우를 배웅하거나 「토함산 고개」, 「불국사의 밤」 같이 원형적인 민족 정서를 담아낸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남령의 작품과 시대가 맺고 있는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이며, “삶의 반영이 문학이라면 한 작가의 삶은 문학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sup>30)</sup>라며 문학론의 일반적 명제로 조남령 연구의 서두를 뗀 것은 확실히 적절했다.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거나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조남령의 생애와 작품은 분명하게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작의 원체험이자 문학적 신념은 그의 생애와 작품의 동일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의 본질적 체험은 시름으로 응축되어 시적 언어를 주조하는 토대가 되고 다시 시인은 시적 언어를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시름을 재현해 낸다. 여기에서는 조남령의 초기 작품들에 나타난 시름-이미지의 종합을 통해 그것의 실체를 연역해 보고자 한다.

물무 뒷산에는 진달래 뱌답니다./구름다리 시냇가엔 살구꽃 피겠지요./그꽃잎 나의 빨인양 살窓 속에 너리까.<sup>31)</sup>

스승과 함께 예술/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자연과 현실을 대상으로 시상을 정리하던 고향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었고, 또 꽃

30) 이동순, 앞의 논문, 177쪽.

31) 「窓—어느 스승님께」, 『문장』1(6), 1999.7.

이 펼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도모하다 시대적이고 이념적인 불화로 인해 싸늘한 옥중에서 겨울을 지새야하는 스승에게 따뜻한 봄소식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봄의 손짓, 발짓을 저 아름답게 편 진달래와 아름답게 펼 살구꽃의 꽃잎에 실어 창살 너머에 있는 스승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심전심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갈라놓는 창살은 외려 시인의 개인적이고 애통한 정서를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시름의 차원으로 교통시키는 매개물이 되고 있다. 즉 육체는 창살에 의해 억압되어 있지만 정신은 저 창살을 통해 넘어가는 것이다.

매미 우는 소리 어린 시절 눈에 어려/낮으막 키 줄이고 나무가지 쳐  
다보니/뒤꼭지 저편 숲에서 꾀꼬리도 우더라.<sup>32)</sup>

쑥떡·나물국철 기다리기 겨웁고나/들역 띠뿌리는 아직도 얼어슬까/  
보리밧 검은 이랑은 노글노글 녹는다<sup>33)</sup>

자연과 함께 한 고향의 유년 체험은 시인에게 삶과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매미와 꾀꼬리의 울음은 한 여름의 정겨운 노래처럼 들렸을 것이며, 어머니가 만들어준 쑥떡과 나물국의 향취와 맛내는 봄이 왔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고향의 체험이 과거 회상이나 막연한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시인에게 상실의 정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그것이 식민지하라는 부조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면 그러한 정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주어진 물리적인 고향과 체험적으로 주어진

---

32) 「鄉愁」, 『문장』1(11), 1939.12.

33) 「새봄」, 『조선일보』, 1940.1.5.

정신적인 고향 둘 다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비면 내골서 온양 거지없이 묻습네.”<sup>34)</sup>에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처럼, 제비만 보면 고향의 봄소식을 묻고 싶어 하는 시인의 심정이 지극한 애통함에 맞닿아 있는 소이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고향의 봄소식을 묻는 일의 이면에 고향의 스승에게 찾아올 봄소식에 대한 기대의 심사가 놓여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무도 하나 없는 열대밭 山봉오리/아침 찬 氣流는 안개만 몰고 와  
서/외로히 해매는 나를 어지러이 치고 가네<sup>35)</sup>

내사 날이 날마다/해매는 몸이외다/발이 부를어도/아랑곳 없지만도/  
들섶에 쌓인 돌조각/마음 아펴하외다.<sup>36)</sup>

조남령은 1940년대 초입 일본 유학길을 떠난다. 제국주의와 근대주의의 모순이 공존하는 일본이라는 이역 공간, 식민치하에서의 퇴색과 문명의 찬란이 교차하는 역사 공간, 슬픔(“외롭과 괴롭”)과 그리움의 양가감정이 일어나는 모순 공간 속에서 정주하지 못하고 해맬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의 ‘외로움’과 삶의 ‘근심’을 조남령은 찬 바람이 자신을 “어지러이 치고 가네”라는 비애의 어조에 실어 토로하고 있다. 1943년에는 학도병으로 징집되면서 경주를 찾게 되는데, “날마다/ 해매는 몸”으로 자신을 규정한 그는 조국땅을 밟은 그때의 심정을 또한 자신의 발은 부르터도 상관이 없지만 들가에 쌓여 있는 돌조각만 봐도 “마음 아펴하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시인이 토로하고

34) 「鄉愁」, 『문장』1(11), 1939.12.

35) 「駒岳—箱根日記」, 『문장』2(8), 1940.10.

36) 「황룡사지(皇龍寺址)에 서서」, 『한글』13(4), 1949.4.

고백하는 외로움과 근심의 정서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생성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역으로 공동체와 풍요가 넘치는 고향의 체험을 더욱 부각시키는 시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조남령의 초기 작품들에서 전경화되는 것이 시인의 비애 섞인 자조의 정서가 아니라 비애를 넘어서는 확고한 향수의 정신일 때, 그러한 향수는 시인에게 있어서 주체적 신념과 다르지 않다. 현실과 대면하는 시인들에게 “향수와 귀향은 개별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추스르고 역사적 신체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임을 자기 증명하기 위한 시적 모티프”<sup>37)</sup>가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남령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향이라는 시적 모티프는 실감실정을 통한 시름의 표현이 추상적인 상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맞닿아 있기를 욕망하는 작가 의식의 소산인 것이다.<sup>38)</sup> 앞서 문학적 신념은 시인의 기교에 의해 의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의 공작에 의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명의에 입각한 조남령의 시는 고결한 시적 영혼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일관된 시적 기원으로 ‘고향’을 표상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름’은 개인의 정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향이라는 시적 기원이 상처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고뇌이자 모순의 사태가 된다. 조남령의 시조에서 재현되고 있는 시름의 양상을 종합해 볼 때, 시름은 염려, 그리움, 외로움, 근심, 속악, 처량, 서러움 등의 정서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시인의 내면적 정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소화시키는 대신, 시인이 체험하고 마주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주체적 대응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적 정서의 재현이 현실적

37) 박민규, 「고향의 형상화와 시적 주체의 재편」, 『우리문학연구』53, 2017, 259쪽.

38) 이와 관련하여 이병기와 함께 조남령에게 영향을 끼친 조운도 자신의 작품에서 실감실정의 방식을 통해 민중의 생활 및 의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냈다는 논의(우은진, 「조운과 1920년대 현대시조의 형성」, 『한국민족문화』40, 2011, 33쪽.)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들 세 시인들이 명의에 입각한 문학적 신념을 공유했으리라는 가설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고 구체적인 일상적 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적 체취가 섬세하고 다정한 관찰 및 고아한 언어 표현을 통해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작 태도가 명의(命意)에 입각해 있으며, 명의를 통해 시인은 역사/시대적 시름을 풀어낼 수 있는 ‘삼기다’의 주체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주체적 행위를 추동하는 시름의 원형들이 실제로 부조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일 때, 고뇌이자 모순의 산물로서 시름은 명의의 스승이었던 사람의 작품에 나타난 ‘정서의 복합물’<sup>39)</sup>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름을 풀어 노래를 삼기는 주체야말로 현실 대옹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다.

“조금 幸福하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다른 問題가 우리 人生을 襲擊한다. 그 새로 닥쳐온 問題를 解決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人生 航路다.”<sup>40)</sup> 즉 삶이 시름의 연속이라면 삶은 시름의 해결 과정이기도 하다. 조남령은 시름의 얕힘과 풀림이라는 상태의 교차 지점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통해 시름을 실감실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삼기다’의 주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를 통해 인간과 자연물의 유사와 상사에 주목함으로써 삶(生)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혹은 균형을 맞춰가는 여행이라는 ‘존재[생명]의 거대한 연쇄’에까지 인식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가 사람의 시조를 읽으면서 “시인의 영혼은 우주와 융화할 수 있다”<sup>41)</sup> 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 혹은 생명체의 가슴 속에 보편적으로 얹혀있는 시름을 시적 언어를 통해 재현하는 일은 시름의 풀림을 염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확고하고 고결한 신념을 바탕으로 고뇌와 모순의 총체인 시름을 풀어내는 일과 생명의 우주가

39) 이병기에게서 시름의 의미를 “국권 상실에서 오는 시대적 절망감과 일제의 야만적 폭력에서 기인된 선비의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정서”라고 본 오세영의 논의는 조남령의 시름을 이해하는 한 단서가 된다. 오세영, 「가람 이병기의 시사적 위치와 ‘시름’의 의미」, 『시조사학』64, 2017, 255쪽.

40) 「詩話三題」, 『학풍』, 1949.3.(『전집』, 163쪽).

41) 「現代詩調論」, 『문장』2(9), 1940.10.(『전집』, 109쪽).

만나 융화하면서 독자들에게 영혼의 확장과 휴식을 제공하는 “남실남실한 정서의 저수지”<sup>42)</sup>가 곧 문학이기를 꿈꾸었던 바로 그 기원의 지점에서 조남령의 시조는 다시 새롭게 읽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 IV. 나오는 말

이 글은 조남령의 문학 세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론(試論)으로써, 그의 시작(詩作)을 가능하게 한 시적 영감의 원천이 명의(命意)에 있으며 그의 작품에 내재한 시름의 의미를 분석하여 시적 기원의 자리에 고향이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 논구하였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한계와 과제를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남령이 형식으로 부터의 자유를 추구하여 시조의 현대적 혁신을 지향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남령의 문학 세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풀어야하는 지점은 명의에만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명의에 주목하면서 곁으로 비껴 두었던 형식의 문제는 조남령의 문학 세계가 시조 혹은 시조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조론에 입각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개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조, 시, 동시, 소설, 산문 등을 넘긴 조남령을 어떤 장르의 작가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마주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물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고시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학적 현대성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남령은 시조나 현대시 혹은 시인이나 소설가라는 경계적 구분을 넘어서는 지점에 위치한다. 굳이 명명하자면 시조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적인’ 문학을 지향한 혹은 창작하려고 시

---

42) 「現代詩調論」, 『문장』2(10), 1940.11. (『전집』, 127쪽).

도한 시인=작가라고 부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조남령의 문학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한 방향은 그의 시조가 고시조와 형식 혹은 내용의 측면에서 어떤 상사와 차이를 지니며, 당대의 다른 현대성을 지향한 시조와는 어떤 상사와 차이를 지니는지를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다. 또한 장르를 넘어 창작된 그의 여러 작품들에 내재한 문학적 신념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남령의 문학 세계는 ‘어둠’ 속에 놓여있었지만, 새로운 『전집』의 발간과 함께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시대와 이념의 모순 속에서 비워져 있던 한국문학사의 빈자리가 후속 연구를 통해 촘촘히 채워져 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조남령 문학 전집』, 소명출판, 2018.
- 「제1회 신인문학콩쿨」, 『동아일보』, 1938.7.29.
- 「새봄」, 『조선일보』, 1940.1.5.
- 「시조를 뽑고」, 『문장』1(6), 1939.7.
- 「시조를 뽑고」, 『문장』1(11), 1939.12.
- 「시조선후(時調選後)」, 『문장』2(5), 1940.5.

### 2. 학술자료

-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현대적 계승」, 『시조학논총』17, 2001, 78쪽.
- 문무학, 「조남령 연구」, 『우리말글』9, 1991, 165~184쪽.
- 박민규, 「고향의 형상화와 시적 주체의 재편」, 『우리문학연구』53, 2017, 253~287쪽.
- 손동호, 「1930년대 『동아일보』 신인문단 연구」, 『인문논총』73(4), 2016, 253~285쪽.
- 엄동섭, 「한 고전주의자의 좌파적 전향—조남령론」, 『어문연구』28(2), 2000, 253~274쪽.
- 오세영, 「가람 이병기의 시사적 위치와 ‘시름’의 의미」, 『시조사학』64, 2017, 244~255쪽.
- 우은진, 「조운과 1920년대 현대시조의 형성」, 『한국민족문화』40, 2011, 97~131쪽.
- 유성호, 「가람, 시조, 문장」, 『비평문학』45, 2012, 369~392쪽.
- 이경애, 「가람·조운·조남령 삼인시조집 발견의 의의」,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9, 2018, 83~117쪽.
- 이동순, 「조남령 시의 역사적 대응 양상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8(3), 2017, 335~354쪽.
- 이명희, 「『문장』이 보여준 ‘전통’의 의미와 의의」, 『현대 문학과 여성』, 깊은샘, 1998.

<Abstract>

## A Study on the Poetics of Cho, Nam-ryung

Jeong, Min-gu

Cho, Nam-Ryung was originally from Yeonggwang and became a writer when he published novels and poems in the New Year's novels in the 1930s~40s. He is also a poet who has been recognized as a leading writer through three recommendations of Garam Lee, Byung-ki. At the same time, however, he is one of the forgotten writers of our literary history. Although his life and works as a whole have not been fully resolved after lifting of the ban as a North Korean writer, the opportunity to restore some of the missing literary history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Cho, Nam-Ryung (2018). Precedent researches have noted that his life and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situation. It is a kind of categorical imperative for the poet to react positively through literature while not facing it in the face of reality. The strong expression of ideology in his works shows that the practice of categorical imperative was an important factor for him or for the writings. However, his overall works does not contain ideology, which is remarkable in some relatively late works.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etic principle that enabled his poetry and his poetic origin as

the aesthetic of the poet. As a result, I want to point out that the expression of ideology is not a simple way but a way of responding to reality that is in touch with the whole process of writing.

Key words: Cho, Nam-Ryung, Poetics, *Myeong-ul*(命意), Anxiety, Ideology, Response to reality

이 논문은 2018년 7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8년 8월 1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